

# 宮牆歌



## [해제]

작자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작품으로 일종의 도덕가사이다. 제목에서 ‘궁장(宮牆)’이라 것으로 보아 궁궐을 짓는 노래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실제 건축이 아닌 유교(儒敎)의 성립된 내력을 주(周)나라 주공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문(孔門)의 70제자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 공부자(孔夫子)의 집을 구경하러 가자는 것으로 작품은 시작되는데,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복희씨(伏羲氏)를 들어 이 땅에 유교의 시작은 바로 이분들의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유교와 관련된 용어를 궁궐짓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실제로 궁궐을 짓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은 유교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앞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후대에 가서도 유교사상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귀경가시 귀경가시 우리벗 사롬덜아 공부자의집" 으로 시작되는 가사이다.

## [원문]

遊觀<sup>호고</sup> 逍遙 倘佯<sup>하야</sup> 歲月  
 가느줄 모리더라 清明 時節에而  
 紛紛<sup>하니</sup> 路上行人 ∞∞ 視니라  
 문노라 收童덜샤 술파는디 어디미뇨  
 거저너風 製酒<sup>호</sup> 恨디 거가무려 雲沒風塹  
 近午天에 小車에다 술을실코 訪花隨柿<sup>하야</sup>  
 前川의로 갈려가니 傍人니 날려  
 이르기을 學少年 黃山谷 돌아들러  
 李白花을 흰여들고 陶壩明 차지라고  
 五柳村前 닐여가이 葛市市에 술듯난소리  
 細內<sup>호</sup> 內<sup>호</sup> 太白이 酒量은 엇터던디  
 一日酒頌 三百杯<sup>호고</sup> 社收之 風永은  
 엇터던디 醉遇楊州 橋<sup>호</sup> 車라  
 아미도 李科의 酒量風采을 杼라담담  
 江湖에 어約두고 十年을 ∞ 赤<sup>하니</sup>  
 물은난 白<sup>호</sup> 은 더디온다 <sup>호</sup> 거이와  
 아미도 聖息이 至曹귀로 骨肉討<sup>하</sup>  
 龐士元의 連還討<sup>라</sup>  
 我每道無 乎東風이면 兩事不及

## 宮牆歌

귀경가시 귀경가시 우리벗 사롬덜아  
 孔夫자의집 귀경가시 이집은 어더<sup>호고</sup>  
 天皇氏 木德年의 材木을 長養<sup>하야</sup>  
 地皇氏 萬世土에 터을 定<sup>호고</sup>  
 伏羲氏 龍馬등에 그림으로 經始區畫을 마란<sup>호며</sup>

堯天 舜日에 坐內을 圭測하고  
 夏禹氏의 金簡玉尺으로 長短庠狹을 지어보며  
 殷旺成湯의 金中金으로 큰싸구즈 큰싸  
 구뒀까지 연장을 터이여 周道의  
 礎들에 가라니고 天圓地方으로 規矩을  
 몹쓰며 文經武緯로 먹줄을 비어니고  
 周公돌여 天地中間 風氣도 훈디  
 相宅 ㅎ엇다가 周靈王 二十一年 庚戌歲에  
 할날님이 萬古大宗匠 孔夫子을 誕降ㅎ샤  
 이집을 創建ㅎ시이 그딛짓기 엇디ㅎ논고  
 千聖의 制度을 詳考ㅎ며 百代의  
 經綸을 收集ㅎ야 德基을 널리 開拓하고  
 心郭을 놉피 두류고 泰和 元氣을 바다  
 經之營之 ㅎ니 成造수발 ㅎ논이  
 거넉고 七十門人이요 役事ㅎ논이 거넉고  
 三千 弟子로다 忠臣으로 基址삼고  
 仁義禮智로 四方柱礎노고 三綱 五常으로  
 기동 세우고 一貫으로 上樑하고  
 兩儀로집 모리하고 四象으로 東西南北  
 로리연고 八八卦 三百八十 四爻로  
 椽木건다 衛武公의 淇園菉竹으로  
 웠디역거 五十土 ㅎ리로 壁맞으며  
 道穀겍질로 디와이고 郁乎 文章으로  
 丹青하고 亭午日 발근곳스로 門을느여  
 青天 一張紙로 窓을 맞으며  
 文武炉中 예門고리 돌저구을 치이니여  
 各各 修粧하고 鄉黨에 자리을 발로게 살고  
 大成至聖 文宣王이 집主人으로 안즈샤  
 四面八德을 同郭히 열어노코 金聲을 울니며  
 木鐸을쳐 落成宴을 排設하고 唐虞  
 三酒盃로 서로 勸酬ㅎ니 無罇우히  
 千仞鳳은 춤을벌여 新成을 賀례하고  
 講堂압페 數飛鳥은 깃술 나부갈여  
 돌아든드 어이도타 이집이여 저리壯타  
 저집이여 漢武帝의 栢樑臺을 조타흔틀  
 이집갓티 조홀손가  
 勝子京의 岳陽樓을 壯타흔틀 저집갓티  
 壯할손가 귀경ㅎ새 귀경ㅎ새 울이벗

사름덜아 이리와서 이집귀경 흐식두어  
 길높푼 堵牆안에 년죽드러서 四方을  
 顧眄하니 杏花꽃시 뒤누여논의 東에는  
 仁宅이라 滿庭春風 예和氣 融融하고  
 南에는 禮門이라 志帥敬公이 忠肅信甲을  
 갓초아 四物旗을 김고 門기디로 叩肅  
 히서시며 西에는 義路라 宇宙人物 멋시나  
 往來하며 北에는 智水라 一帶淸源을 흘어뒤어  
 半畝半塘에 물이 가득하고 意馬의 솟비을  
 謂樹가디에 묶여잇고 德으로 링근 수리는  
 靈垓우히 연저노코 子貢의 孔과  
 顏淵의 밤바골이 물뚝박 各色 器用이  
 여기저기 뇌여잇고 槐市에 靑陰이  
 繁濃하고 徭欄에 香臭딘 動하며  
 靑天에 소록이 쓰고 김푼뭇세 고기썬다  
 어와 우리벗 사름더아 이즐거움  
 엇지 충양할손가 佳景을 차자  
 漸漸 前進하야 堂에 미쳐가니  
 復聖公 宗聖公 述聖公은 임의 집의드여  
 文宣王을 左右로 뵈셔 안즈시고  
 端木賜閔 自騫仲由 等은 압세며 뒗식  
 次第로 堂에 올라온다  
 거름을 나소아 簷에들어 房을 臨하니  
 길이문뒗 窸어젗쏘다 千大萬大 노픈뒗  
 사다리 업스니 어뒤로 올르며  
 痕迹 업논고뒗 발부틸뒗 업스니  
 咫尺間 千里로다 어와 우리벗 사름덜아  
 進退維谷 어이홀고 아미도 예서 멧히라도  
 優遊彷徨하다가 堦淸時節 만나  
 自然 通道하기 발이새  
 孔夫子 도라가신 後에 子思子이  
 뒗직키여 肯構肯 堂하더니 春秋戰國을  
 디닉여 鄒堂에 썬노던 아히 그집바리고  
 이집으로 드러오신다 於爲間 咸陽宮에  
 불이 니러나 六籍을 焚蕩하니  
 이집이 頹敗하도다 漢唐以 來千餘年에  
 이집重修 하리업고 五季風雨 밤에  
 床床屋漏 것춘답이 되어던니 濂溪에

말근물을 써와 이답을 물쓰러 쓸며  
太圖을 壁上에 거여노코 春庭翠草 우히놉피  
안자시니 霽月을 식로이 비최이고  
光風은 들이분다 東窓에 程夫子 兄弟  
즈을씩여 前川花柳을 더러 重修材木을  
訪來求하며 尺雪門庭에 規矩準繩을 嚴히  
베푸러노코 近思錄으로 이답으드논 階檀을  
잉갖고 易傳序로 乾坤의 門戶을 썩드러  
橫渠 훈가디로 興國寺 에셔이답  
重修하기 의논타가 遜役 못다하고  
도라 가신후에 ㅎ날님니 紫陽朱 夫子을  
重修都 有司로 命하샤 毀敗흔 ㅅ을  
씩우시며 스논ㅅ을 修補하시고  
발근燭 불을잠아 滿堂塵埃을 비최여 쓸며  
筆峰을 가다듬아 聖路에 榛無을 썩어  
맞이시니 百家에 作舍道傍 ㅎ던말이  
쓸여디더라 이답의 들여갈길을 坦坦히  
닷거 노ㅎ시고 도라가신 후에  
我東方 箕子國에 圃暄蠹靜 晦退牛谷으로  
重峰님고 河沙尤春으로 花田에 니르러  
이집이다 귀경 ㅎ시고 이제논 니집  
들어가리 ㄴ읷잇논고 어와우리 ㅅ 사람덜아  
힘써보소 갑엽논 이집 아모ㄹ도 ㅅ지ㅎ면  
니집 아닌가 十二萬九千六百年 ㅅ지라도  
니집 엽셔디던 안이ㅎ리

## [현대역]

## 宮牆歌

구경가세 구경가세 우리 벗 사람들아  
 공부자(孔夫子)1의 집에 구경가세  
 이 집은 어떠한고 천황씨(天皇氏)2  
 목덕년(木德年)의 재목(材木)을 장양(長養)3하여  
 지황씨(地皇氏)4 만세상(萬世土)에 터를 정(定)하고  
 복희씨(伏羲氏)5 용마(龍馬)등에 그림으로  
 경시구화(經始區畫)를 마련하여  
 요천순일(堯天舜日)6에 좌내(坐內)를 규측(圭測)하고  
 하우씨(夏禹氏)7의 금간옥척(金簡玉尺)8으로  
 장단지섬(長短疋袂)을 재어보며  
 은왕성탕(殷旺成湯)9의 금중금(金中金)으로  
 큰 짜구 작은 짜구 백가지 연장을 터이여  
 주도(周道)의 숫돌에 갈아내고  
 천원지방(天圓地方)10으로 규구(規矩)11를 못뜨며  
 문경무위(文經武緯)12로 먹줄을 비워내고  
 주공(周公)13 달려 천지중간풍기(天地中間風氣) 좋은데  
 상택(相宅)14하였다가  
 주령왕(周靈王) 이십일년(二十一年) 경술세(庚戌歲)에 하느님이  
 만고(萬古) 대종장(大宗匠) 공부자(孔夫子)를 탄강(誕降)15하시니  
 이 집을 창건(創建)하시니 그 집 짓기 어떠한가  
 천성(千聖)의 제도(制度)를 상고(詳考)16하며  
 백대(百代)의  
 경륜(經綸)17을 수집(收集)하여  
 덕기(德基)를 널리 개척(開拓)하고  
 심곽(心郭)을 높이 두르고  
 태화원기(泰和元氣)를 받아  
 경지영지(經之營之)18하니  
 성조(成造)수발하는 이가 누군가  
 칠십문인(七十門人)19이요 역사(役事)하는  
 이가 누군가 삼천제자(三千弟子)로다  
 충신(忠臣)으로 기지(基址)20삼고  
 인의예지(仁義禮智)로 사방주초(四方柱礎)21놓고  
 삼강오륜(三綱五常)22으로 기동세우고  
 일관(一貫)으로 상량(上樑)하고  
 양의(兩儀)23로 집마루하고 사상(四象)24으로  
 동서남북(東西南北)로리연고

팔팔괘(八八卦)25 삼백육십효(三百八十四爻)로  
 연목(椽木)26건다  
 위무공(衛武公)27의 기원녹죽(淇園菉竹)으로  
 윗대 엮어 오십토(五十土)28 흐리로 벽(壁)바치며  
 도곡(道穀)겉질로 지붕이고 육호문장(郁乎文章)으로  
 단청(丹青)하고 정오일(亭午日) 밝은 곳으로  
 문(門)을 내어 청천일장지(青天一張紙)로 창(窓)을 내며  
 문무로중(文武爐中)에 문(門)고리 돌저귀를 치이내어  
 각각수장(各各修粧)하고 향당(鄉黨)에 자리를 발로 게깔고  
 대성지성(大成至聖) 문선왕(文宣王)29이 집 주인(主人)으로 앉아  
 사면(四面) 팔덕(八德)30을 동곽(同郭)히 열어놓고  
 금성(金聲)을 울리며 목탁(木鐸)을 쳐 낙성연(落成宴)31을  
 배설(排設)하고  
 당우삼배주(唐虞三酒盃)로  
 서로 권수(勸酬)하니 무(無雩)32 위에  
 천인봉(千仞鳳)은 춤을 벌여  
 신성(新成)을 하(賀)례하고 강당(講堂) 앞에  
 수비도(數飛鳥)는 깃을 나부끼며 돌아든다  
 어이 좋다 이 집이여 저리 장(壯)하다  
 저 집이여 한무제(漢武帝)33의 백량대(栢梁臺)34를  
 좋다한들 이 집같이 좋겠는가  
 승자경(勝子京)의 악양루(岳陽樓)35를 장(壯)하다한들  
 저 집같이 장(壯)하겠는가  
 구경하세 구경하세 우리 벗 사람들아 이리와서  
 이 집 구경하세 두어 길 높은 도장(堵牆)안에  
 년지시 들어서서 사방(四方)을  
 고면(顧眄)하니 행화(杏花)꽃이  
 뒤집혀 놓았는데 동(東)에는 인택(仁宅)이라  
 만정춘풍(滿庭春風)에 화기윙윙(和氣融融)하고  
 남(南)에는 예문(禮門)이라 지수경공(志帥敬公)이  
 충주신갑(忠胄信甲)을 갖추어 사물기(四物旗)를  
 입고 문(門)기디로 흰숙(叩肅)하시며  
 서(西)에는 의로(義路)라 우주인물(宇宙人物)  
 몇이나 왕래(往來)하며 북(北)에는 지수(智水)라  
 일대청원(一帶淸源)을 흘러내어  
 반무반당(半畝半塘)에 물이 가득하고  
 의마(意馬)에 꽃비를 위수(謂樹)가 뒤에 매여있고  
 덕(德)으로 만든 수리는

만든 수리는 영대(靈垓) 위에 얹어놓고  
 자공(子貢)의 공(孔)과 안연(顏淵)36의 밤바골이 물뚝박  
 각색기용(各色器用)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괴시(槐市)에 청음(靑陰)이 번농(繁濃)하고  
 기란(倚欄)에 향취(香臭) 진동(動)하며  
 청천(靑天)에 소록이 뜨고 깊은 못에 고기 뜬다  
 어와 우리 벗 사람들아 이 즐거움 어찌 총양할건가  
 가경(佳景)을 찾아 점점전지(漸漸前進)하여 당(堂)에  
 미쳐가니 복성공종성공술성공(復聖公宗聖公述聖公)은  
 임의 집에 들어  
 문선왕(文宣王)을 좌우(左右)로 모셔 앉으시고  
 단목사민자건중유등(端木賜閔自騫仲由等)은  
 앞에 뒤에 차례(次第)로 당(堂)에 올라온다  
 걸음을 내서 집에 들어 방(房)을 임(臨)하니  
 길이 문득 끊어졌도다  
 천대만대(千大萬大) 높은데 사다리 없으니  
 어디로 오르며 흔적(痕迹)없는 곳에  
 발붙일 데 없으니 지척간천리(咫尺間千里)로다  
 어와 우리 벗 사람들아 진퇴유곡(進退維谷) 어이할까  
 아마도 여기서 몇이라도 우유방황(優遊彷徨)하다가  
 좋은 시절(時節)만나  
 자연통도(自然通道)하기 바라세.  
 공부자(孔夫子) 돌아가신 후(後)에 자사자(子思子)37이 집 지키어  
 긍구궁당(肯構肯堂)38하더니 춘추전국(春秋戰國)을 지내어  
 추당(鄒堂)에 뛰놀던 아이 그 집 버리고 이 집으로 들어오신다  
 어위간함양궁(於爲間咸陽宮)에 불이 일어나 육적(六籍)39을  
 분탕(焚蕩)40하니 이 집이 퇴패(頽敗)하도다  
 한당이래(漢唐以來) 천여년(千餘年)에 이 집 중수(重修)할 사람 없고  
 오계풍우(五季風雨) 밤에 상상옥루(床床屋漏)같은 집 되었더니  
 염계(濂溪)41에 맑은 물을 떠와 이 집을 물뿌려 쓸며  
  
 태도(太圖)42를 벽상(壁上)에 걸어놓고  
 춘정취초(春庭翠草) 위에 높이 앉았으니  
 제월(霽月)을 새로이 비추이고 광풍(光風)43은 들이분다  
 동창(東窓)에 정부자(程夫子)44 형제(兄弟) 잠을 깨어  
 전천화석(前川花柳)을 들어 중수재목(重修材木)을  
 방래구(訪來求)하며 지설문정(尺雪門庭)에  
 규구준승(規矩準繩)45을 엄(嚴)히 베풀어놓고



근사록(近思錄)46으로 이 집에 드는 계단(階檀)을 만들고  
역전서(易傳序)로 건곤(乾坤)의 문호(門戶)를 두드려서  
횡거(橫渠)47 한 가지로 흥국사(興國寺)에서  
이 집 중수(重修)하기 의논하다가  
서역(逆役) 못다하고 돌아가신 후에  
하느님이 자양주부자(紫陽朱夫子)를  
중수도유사(重修都有司)로 명하시어  
훼패(毀敗)48한 곳을 떼우시며 사는 데를  
보수(修補) 하시고 밝은 촛(燭)불을 담아  
만당진애(滿堂塵埃)를 비추어 쓸며  
필봉(筆峰)을 가다듬어 성로(聖路)에  
진무(榛無)를 뿌려 비치시니  
백가(百家)에 작사도방(作舍道傍)49 하는  
말이 쓰여지더라 이 집의 들어갈 길을  
탄탄(坦坦)히 닦아놓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 [각주]

- 1) 공부자(孔夫子) : 공자(孔子)의 존칭(尊稱). 도덕문장(道德文章)에 정통(淨桶)한 대성인(大聖人)이시고 유교(儒敎)의 조종(祖宗)이 되었다.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때 노(魯)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처음 노나라에서 벼슬이 사구(司寇)에 이르렀으며 그 후 사방(四方)을 주유(周遊)하다가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 시(詩)·서(書)·예(禮)·악(樂)·역(易)·춘추(春秋)의 육경(六經)을 닦았으며 제자가 삼천인(三千人)이고 육예(六藝)에 능통한 자(者)가 칠십이인(七十二人)에 이른다. 주경왕(周敬王) 사십이년(四十二年)에 연(年) 칠십삼(七十三)세로 서거(逝去)하였다. 당(唐)에서 문선왕(文宣王)을 추봉(追封)하고 원(元)에서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추존(追尊)하였다.
- 2) 천황씨(天皇氏) : 옥황상제(玉皇上帝)를 달리 부르는 말.
- 3) 장양(長養) : 길러 양성함
- 4) 지황씨(地皇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천지인 삼재 사상에 바탕을 둔 삼황(三皇)의 하나로 천황씨(天皇氏)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 5) 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삼황오제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팔괘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 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 6) 요천순일(堯天舜日) : 요순시대를 달리 부르는 말로 요임금과 순임금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던 태평한 시대와 치세의 모범으로 삼는 시대를 말한다.
- 7)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을 이르는 말
- 8) 금간옥척(金簡玉尺) : 금간(金看)은 죽간대신 쇠에 글자를 새겨넣은 책을 말하며, 옥척(玉尺)은 옥으로 만든 자를 말한다.
- 9) 은왕성탕(殷旺成湯) : 중국 은(殷)나라를 세운 탕(湯)임금을 말한다.
- 10)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남을 이르는 말. 중국 진 秦 나라 때의 『여씨춘추전(呂氏春秋傳)』에 나오는 말이다.
- 11) 규구(規矩) : 규구(規矩)의 잘못된 표기인 것으로 보이며, 지름이나 선의 거리(距離)를 재는 도구(道具)나 그림쇠를 말한다.
- 12) 문경무위(文經武緯) : 경위(經緯)는 직물(織物)의 날과 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문경무위는 문을 날로 삼고 무를 씨로 삼는다는 뜻이다.
- 13) 주공(周公) : 주공(周公) 이름은 단(旦) 주문왕(周文王)의 자(子), 무왕(武王)의 제(弟), 성왕(成王)의 숙부(叔父)이다. 무왕(武王)을 도와 주(紂)를 벌(伐)하고 무왕(武王)이 붕(崩)하였을 때 성왕(成王)이 연유(年幼)하여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하며 주무경 살관숙 방찰숙(誅武庚 殺館叔 放察叔)하고 제도(制度)와 예악(禮樂)을 정(定)하여 천하(天下)를 다스렸다. 시(諡)는 원(元) 또는 문(文)이라 함.
- 14) 상택(相宅) : 집터를 보는 일.
- 15) 탄강(誕降) : 하늘에서 세상에 내린다는 뜻으로 임금이나 성인(聖人)이 세상에 태어남을 이르는 말.
- 16) 상고(詳考) : 상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함.
- 17) 경륜(經綸) : 어떤 포부(抱負)를 가지고 일을 조직(組織)하고 계획(計劃)하는 것
- 18) 경지영지(經之營之) :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감.
- 19) 칠십문인(七十門人) : 공자의 제자 삼천인중(三千人中) 육예(六藝)에 능통(能通)한 자(者) 칠십이인(七十二人)을 말함.
- 20) 기지(基址)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사업의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1) 사방주초(四方柱礎) : 동서남북으로 주춧돌을 놓음.
- 22) 삼강오륜(三綱五常) :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을 말함.
- 23) 양의(兩儀) : 양과 음 또는, 하늘과 땅을 말함.
- 24) 사상(四象) :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아울러서 말함.
- 25) 팔팔괘(八八卦) : 주역의 운명 원리로 복희(伏羲)가 처음으로 8괘를 만들고, 그 뒤사람이 그 중 2괘씩을 겹쳐 중괘(重卦) 64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 26) 연목(椽木) : 서까래를 말한다.
- 27) 위무공(衛武公) : 춘추시대 위나라 임금으로 강숙(康叔)의 8대 손자이다. 이름은 화(和)이며 강숙이 하던 정사를 그대로 닦아 백성을 화합하여 모이게 했고, 주(周)나라를 도와주기도 했다.
- 28) 오십토(五十土) : 천오생토(天五生土)에 지십성지(地十成地)를 말한다.
- 29) 문선왕(文宣王) : 공자의 시호(諡號)로 중국 당나라 현종이 내렸다.
- 30) 팔덕(八德)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충(忠), 신(信), 효(孝), 제(悌)의 여덟 가지 덕(德)을 말한다.
- 31) 낙성연(落成宴) : 건물의 완성을 축하하는 잔치.
- 32) 무(無雩) : 무우(舞雩)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이며, 기우제를 지내는 곳을 말한다.
- 33) 한무제(漢武帝) : 전한의 7대 황제로 이름은 유철(劉徹)이고 시호는 세종(世宗)이다. 황제에 즉위한 후 권신들을 면직시키고 어질고 겸손한 선비를 등용하여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어 유학에 중점을 두고, 기원전 127년부터 왕국을 분봉(分封)하여 중앙집권화 했다. 후에 전국을 13주(州)로 나누고, 주마다 자사(刺史)를 두어 군수를 감독했고, 운하를 굴착하여 농지의 관개와 운송을 도왔다.
- 34) 백량대(栢梁臺) : 한무제(漢武帝) 때 지은 누대(樓臺)의 이름이다.
- 35) 악양루(岳陽樓) : 악양루(岳陽樓)는 중국(中國) 호남성(湖南省) 병장현(兵章縣) 동정호(洞庭湖) 동안(東岸)에 있는 풍경(風景)이 절승(絶勝)한 루(樓)를 말한다.
- 36) 안연(顏淵) : 공자의 제자로 안회(顏回)의 성(姓)과 자(字)를 함께 이르는 이름.
- 37) 자사자(子思子) : 중국 고대 노(魯)나라의 학자. 공자의 손자이며, 사서의 하나인 『중용(中庸)』의 저자로 전한다. 고향인 노나라에 살면서 증자(曾子)의 학문을 배워 유학 전승에 힘썼다. 일상생활에서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용을 지향했다.
- 38) 긍구궁당(肯構肯堂) :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자식이 이를 이음을 뜻하는 말.
- 39) 육적(六籍) : 육경(六經)과 같은 말이다.
- 40) 분탕(焚蕩) : 남의 물건 따위를 약탈하거나 노략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1) 염계(濂溪) : 태극도설을 주장한 주돈이(周敦頤)를 말한다.
- 42) 태도(太圖) : 태극도(太極圖)를 말한다.
- 43) 광풍(光風) : 맑게 갠 날씨에 부는 바람. 봄날에 따사롭게 부는 바람.
- 44) 정부자(程夫子) : 중국 宋나라의 두 유가(儒家)인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형제를 말한다.
- 45) 규구준승(規矩準繩) : 규구준승(規矩準繩)이 바른 표기이며, 목수가 쓰는 그림쇠, 자, 수준기, 먹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말한다.
- 46) 근사록(近思錄) : 중국 송나라 때에 주자와 그 제자인 여조경이 함께 편찬한 책으로 일상 수양에 필

요한 장구(章句) 622조목으로 14부로 분류한 것이다.

47) 횡거(橫渠) : 성은 장(張), 이름은 재(載), 자(字)는 자후(子厚). 호(號)는 횡거(橫渠)이다.

48) 훼패(毀敗) : 헐거나 부숨.

49) 작사도방(作舍道傍) : 길가에 집 짓기라는 뜻으로, 무슨 일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얼른 결정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